

ARCASIA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에 관하여

金知德 / 본협회 국제 위원회 위원장,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부회장

by Kim, Chi-Tok



본 글에서는 본협회에서 매년 참가하고 있는 국제회의에 대한 건축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ARCASIA란 무슨 일을 하는 국제기구이며, 아카시아 이사회는 어떠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ARCASIA 포럼(Forum)은 어떤 국제기구이며, ARCASIA 건축 교육위원회(ACAE)와 학생 잼버리대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시아 건축사대회(ACA)는 어떤행사이며, 아카시아 건축상은 어떠한 상인가 등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ARCASIA(The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란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이며, 아시아지역의 국가 건축사협회의 회원과 그 협회장을 포함한 이사회를 말한다.

이 국제조직은 각 지역협회 회원에 관한 기획과 관련 문제를 포함한 여러문제들에 관여하여 해결하고, 협의하고, 봉사하는 단체다. 이사회의는 매년 각 국가의 지역에서 발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축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점들을 모아서 지시하고, 발표하고, 의견교환도 한다.

ARCASIA의 창립 목적은 다음의 6가지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있다.

1. 아시아지역 국가간 지성, 예술, 교육 그리고 과학기술의 우정연계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기초한 국가 건축사협회 사이의 결속을 굳건히 한다.
2. 전문가로서의 접촉, 상호협력 그리고 각국회원 협회사이의 협력을 굳건히 한다.
3. 각 국가간의 협회 회원들과 국제적 수준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제출해서 해결한다.
4.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인식을 위해

술선수범한다.

5. 사회에 봉사하는 건축사의 교육과 개발을 위해 술선수범한다.
6. 건축사들이 연구와 노력으로 선진기술 분야에서 쌓아가는 여러 환경의 문제들에 선두적 역할을 한다.

ARCASIA의 역사

ARCASIA의 역사는 1967년 건축가영연방위원회(Common 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즉 CAA 뉴델리 회의때 창설이 거론되었다.

지역지구 중심기구로 건축가들의 제반문제들을 해결하는 국제적 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연관해서 영연방(CAA) 회원국 6개 국가 건축사협회 회원사이에 환경설계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6개국 창설협회 국가들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이었으며, 최초 제안문제는 선진 환경 기술의 중심기구(CETA)탄생이 그 요건이었고, ARCASIA 이사회의 탄생이 거론되었다.

1969~1974년 처음 이사회의가 구성되어 1970년 9월 영연방 건축사모임과 ARCASIA모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식명칭을 「ARCASIA」라고 칭했다. 전세계 조직의 필요성 인식과 때를 같이하여 ARCASIA 지역간의 중요하고 필요한 회원국가 건축사들간의 문제들을 갖고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게 되었다. 당시 각 국가의 협회는 이미 세계 건축가연맹(UIA)과 UNESCO와 연관된 국제조직 회원국가였다.

홍콩에서 첫번째 ARCASIA공식 이사회를 개최하여 ARCASIA 정관, ARCASIA의 교육위원회(ABAE)가 공식 탄생이후 10년뒤 1979년 다음의 6개 아시아국가 건축가협회의도 자카르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그 모임의 승인을 합의했던 것이다.

HONG KONG (HKIA)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 (IAI)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 (PAM)
타일랜드 건축사협회 (ASA)
싱가폴 건축사협회 (SIA)

필리핀 건축사협회 (UAP)

1987년 인도네시아 Bali에서 제8차 이사회의와 제4차 ARCASIA Forum이 거행됐는데, 이 이사회의에서 ARCASIA Forum과 아시아건축사대회 (ACA)는 격년제로 할 것을 채택했다.

1988년 10월 서울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주최로 제9차 ARCASIA 이사회와 제 3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미국, 영국, 호주 등지에서 이 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250여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제 9차 이사회의 때 중국건축학회가 ARCASIA 회원국으로 정식가입했다. 이 국제회의 기간동안 자유중국 건축사협회가 4년간 노력해서 ARCASIA회원국 가입을 목표했으나 결국 한나라에서 1개 협회만 가입한다는 ARCASIA 회원자격 기준때문에 대만은 이 회의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 10차 ARCASIA 이사회와 제 5차 ARCASIA Forum과 1989년 Bangkok에서 개최됐고, ARCASIA 정관 세칙이 작성되어 각 회원국에 배포됐다.

1990년 제 4차 아시아건축사대회는 인도의 New Delhi에서, 제 11차 이사회의와 동시에 인도 건축사협회 주최로 개최됐다. 제반 ARCASIA 정관세칙이 약간의 자구수정과 함께 통과됐으며, 이사회의에서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ARCASIA 회의때 ARCASIA 우수 건축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1991년 9월에 제 12차 이사회의와 제 6차 ARCASIA Forum 이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됐는데, 여기서 1991년 건축사 결의문 선언을 채택했다.

1992년 10월 24일 제 5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제 13차 이사회의가 Lahore에서 개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위원회 위원들과 오운동 회장이 공식협회 대표로 참석했다.

ARCASIA건축교육위원회 (ACAE)

ACAE (Asian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은 ARCASIA의 교육핵심이다. 여러 국가협회 교육위원회의 의장들로 구성된 이 국제단체는 언제나 ARCASIA 이사회와 동시에 개최되는데, 건축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건축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전근대식으로 건축사 연수위원회외에는 건축사 교육위원회란 타이틀도 없고 이런 교육위원회도 없고, 이러한 위원회는 이름조차도 변경이 안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표로 전봉수 위원장과 조인숙 위원이 ARCASIA 교육위원회 회의에 1988년 이후 매년 공식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ARCASIA 교육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교육에 관한 모든 제반문제들을 이사회를 대신하여 자문하고 집행한다.
2. 각국 협회의 건축교육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협력하고 공동노력한다.
3. 각 국가의 국가 건축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지역건축학교나 회원협회를 돕는다.
4. 각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연관된 교육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각 지역 건축학과를 도와준다.
5. 회원국 협회 상호간의 학생과 교수의 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6. 각 국가 건축교육에 관계된 조직을 통해 국제적 토론회 (Forum)개최를 수행한다.
7. ARCASIA 이사회를 통한 각 위원회의 교육적 결정 사항들을 실행에 옮긴다는 목표를 갖고 국제적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한다.

아카시아 건축작품 토론회 (Arcasia Forum)

아카시아의 중요한 국제적 행사의 하나인 것이 바로 「건축 작품 토론회」이다.

이 토론회는 각 지역에 연관된 건축적 이상의 토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현존해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아시아지역이 안고 있는 건축적 고민을 각국의 환경문제와 여러문제들을 토론했고 협의하는 모임인데 아시아 건축가의 건축가들이 조형창조의 원동력 역할을 주고있다.

제 1 회는 Srilanka의 Colombo에서 1982년 10월 9일과 10일 사이에 개최되었고, 제 2회는 제 1 회 아시아건축사대회 (ACA-1)와 동시에 필리핀 마닐라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 3 회는 제 2 회 아시아건축사대회 기간인 1986년 말레이시아의 Kuala Lumpur 에서 동시에 거행했는데, 「아시아 건축설계의 새방향」이란 대주제와 「예술의 경지」란 부주제를 갖고 개최했다.

1986년 ARCASIA 이사회 이후 아시아건축사대회 (ACA)와 Forum (토론회)은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제 4 회 토론회만 인도네시아 Bali에서 「나의 건축」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 5 회는 포럼이 타일랜드 방콕에서 「아시안건축의 사상에 대한 양식」이란 제목으로 1989년 10월 21일~22일 개최했다.

1991년 8월 27일과 28일 중국의 북경에서 제 6 회 토론회가 「아시아 지역의 주거문화의 새로운 사상」이란 제목으로 개최됐다.

아시아건축사대회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RCASIA의 역사적 활동에 증추기능을 갖는 국제행사로 아시아건축사대회라고 칭하며, ARCASIA 이사회와 동시에 개최되어 매 2년 마다 열린다.

ACA는 현대 사회를 사는 건축사상의 지적 교환장소이며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국제행사이다. 참가국가 모두가 화합해서 열리는 문화행사의 친선행사, 매일 열리는 연회, 각종 관광행사 등이 포함된다. 개최국가는 이회의를 위해 특별히 각국 회원들로부터 선택된 건축사들을 선정 개최한다.

ACA-1, 즉, 제 1회 아시아건축사대회는 1984년 10월 필리핀 마닐라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 건축가들의 전략」이란 제목으로 개최했으며 제 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ACA-2)는 198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 럼퍼에서 "아시아에 있어서 전문설계용역의 전략"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 3 차 아시아건축사대회는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시아의 정신 : 지역문화를 위한 건축」이라는 주제로 250명의 각국 건축사들과 800여 국내 건축사들이 모여 해외의 유명 건축사들의 건축사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제 4 차 아시아건축사 대회는 1990년 9월 인도 New Delhi에서 「Architecture Development & Environment in Asian Context」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1992년 Pakistan Lahore에서 제 5 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개최했는데 「건축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란 제목으로 Pakistan 건축사협회가 주최했다. 각국에서 온 약 70여명의 전문건축사들과 Pakistan 200여명의 건축사들이 참석했으며,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알할라 예술회관에서 거행된 이번 회의는 특히, 해외에서 온 35명의 건축전공 대학생들도 함께 참관했다. 자재전과 동시에 열린 이번 회의는 Pakistan 건축사 협회와 Pakistan 전체 건축사들의 대축제로 이루어졌다. 특히 학생들과 인턴 건축사와 기성건축사들 모두가 각자 할일 에 최선의 노력으로 임무수행을 하였다. ACA-5중에서는 영연방건축가연합회 (Common 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아시아 건축사 이사회 (ARCASIA Council),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교육위원회 (ACAE) 등이 동시에 열렸고, UIA (세계건축가연맹)의 회의도 동시에 가졌다. 특히 학생 챔버리 대회는 앞으로 차세대 이끌어갈 젊은 학생건축가들에게 뜻깊은 회의가 되었다.

**건축설계전공재학생 잼버리 대회
(The Architectural Student Jamboree)**

아시아건축사대회와 병행해서 ARCASIA 교육위원회의 주최로 ARCASIA의 각국 회원국가 협회에서 선정한 건축과 학생들이 이 대회에 모인다.

학생대표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 '92한국건축전 학생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한양대학교 건축과 3학년 김태훈, 정은성 두학생이 참가했다. 교육위원회 주최로 하는 학생 잼버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각자 소속된 국가로부터 선발된 우수한 건축학도에게 환경과 향토문화가 다른 국가를 여행하게 함으로써 건축교육적으로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게 한다.
2. 학생들 자신이 갖고 있는 현대 건축의 조건과 문제들을 각 국가의 경우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며 지역의 건축사로 보다 나은 다가올 세대를 키워주기 위함이다.
3. 각 국가에서는 건축과 학생들의 내적요소들에 용기를 북돋기 위하여 이 잼버리를 개최한다.
4. ARCASIA와 아시아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아시아에 사는 건축과 학생들 사이를 서로 인식하고 잘알게 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여 각국협회에서 장래 건축사로서 그들 국가를 돕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하기 위함이다.

건축과 학생들의 참여로 인해 ARCASIA 회의의 중요성을 한층 높여 이 회의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목적을 갖고 건축과 학생 잼버리 대회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AC A-3을 개최할때 조재원 학생잼버리 및 교육위원장 지도아래 우리나라 건축과 학교 재학생과 해외에서 온 학생대표들과 만나 잼버리 대회를 가진바 있었다.

Arcasia Award for Architecture

1. 아카시아 건축작품상은 어떤 건축 작품상인가?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모범적 건축작품을 아시아건축사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매2년마다 수여키로 제정된 건축작품상이다.

1. 안내

아카시아 (ARCASIA)는 아시아지역 각국, 그리고 각 회원국가에서 건설되는 건축의 보다 나은 건설환경 기준을

창출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아카시아 건축상을 제정하여 아시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건축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대표적 건축작품들에 대하여 용기와 이해를 모든 ARCASIA국가 건축사들에게 주기위해 이 상을 제정하게 되었다.

아카시아 건축상은 매2년에 한번 ARCASIA에 의해서 조직된 아시아건축사회의때마다 수여된다. 이 상은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를 포함한 독립된 심사위원들의 회의에서 선발되며 심사위원은 ARCASIA 이사회의에서 임명하고, 최종작품상을 평가하고 발표하게 되어있다.

아카시아 이사회의 (The Council of The ARCASIA)는 각 회원국가의 협회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각 회원국을 대표하여 지역의 건축사관련 여러문제들에 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매년 모이는 이사회의는 각국협회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아시아지역의 건축전문직업에 영향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자료를 취합해서 협의하고, 지시하며, 각 협회에 제안하기도 한다.

2.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건축상 제정의 목적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건축상 제정의 목표는 모범적인 건축작품을 아시아지역 모든 건축 전문가들에게 인정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함으로써 아시아적 정신의 즐거운 보존을 위하는 용기를 북돋으며 아시아의 발전과 개선분야의 질을 높이고,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의 인식을 새롭게 하며 아시아 국가간의 문화적 생활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건축사 역할을 한층 제고하는 것이 된다.

이상에서 특히 강조하는 사항은 좋은 건축작품이 어떻게 인간의 창조환경위에 능동적으로 영향받게되는 여러환경요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여주게 되며, 아시아에 있어서 물질적 개발이 문화적 가치속에서 어떠한 조화를 이루는가? 국가적 특질성과 개발국의 자연환경의 조화와 필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주기때문이다.

ARCASIA 상의 규정과 안내들의 제반사항은 파키스탄 건축사 Syed Zaighams Jaffery가 ARCASIA를 위하여 파키스탄 건축사협회를 대표하여 만들었으며, 1991년 9월 중국 북경에서 거행된 제12차 ARCASIA 이사회의의 인준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3. 작품상의 범위

작품상 수여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있다.

Category A 주거부분건축

단층건물, 다세대주택, 개인주택, 복합주택 등 공공건축물

Category B

사무소건축, 공익건축, 종교건축, 쇼펍센터 등 산업건축물

Category C

공장건축, 창고 등 역사보존건축물

Category D

아시아국가내에 있는 역사유물 건축유지물 또는 복원된 기념건축물.

4. 작품을 제출할 수 있는 건축사

ARCASIA 회원국의 건축사협회에 소속되어 활동중인 건축사들만이 가능하며, 현재 ARCASIA 협의회 회원국 15개국의 국가 모두는 작품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작고한 건축사 작품도 제출이 가능하다.

작품제출에는 2개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각국의 협회는 모든 분야의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각 국가협회에서 제출된 금상작품 등 제출된 작품은 그 국가협회나 ARCASIA에 의하여 공식발표하게 되며, 작품상을 받지 못한 개인 작품들도 제출할 수 있으나, 필히 ARCASIA 회원국가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 ARCASIA 작품제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각협회에서 심사할 것이며, 제출작품은 자국의 건축사협회 회장의 명의로 하여 제출해야 한다. ARCASIA 작품제출은 최소 준공기간이 2년이 지난 건축물이어야 되며, ARCASIA Award는 하나의 Category에 1개 작품만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5. 작품상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선정된 작품은 「ARC ASIA 건축상」이란 제목으로 Gold Medal (금상)을 수여받게 되는데, 매2년에 한번 수여한다.

심사위원회는 수상거부 권한 및 수상작 결정의 권한이 주어진다.

6. 심사규정

심사작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는 지역특성, 사회적·문화적 상황과 환경문제 등의 여러 요소를 심각히 논의해야 하고, 실제로 시설물의 준공결과 규정에 특별한 상황을 참작해야 하며, 아시아지역 특성에 부합된 기술적이고, 전체현황이 건설한 작품이어야 한다. 필히 사용자 (건물주)의 반응을 별첨하여야 한다. 특히 작품설계는 아시아지역의 특성을 표한 영감짓는 작품이 선택되는 기준으로 삼는다.

7. 제출되어야 할 자료들

제출되는 자료는 Site Plan, 평면, 단면, 천연색 사진 그리고 영문으로 된 설명서 등이다. 최종서류로 일단 접수된 작품이 최종심사 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최종 심사위원회에 별 추가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ARCASIA의 재산이 되고, ARCASIA가 발행하는 출판물에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8. 작품 제출 절차

각 국가의 건축사협회는 ARCASIA시상 규정에 따라서 1개 또는 그 이상의 작품을 심사위원회에 낼 수 있다. 각 작품은 규정에 요구된 작품설명서를 작품별로 따로따로 제출해야 한다.

ARCASIA에 의하여 작성된 공식 문서는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표현해야 하고 설명되어져야 한다. 이 공식문서는 ARCASIA에서 구득할 수 있으며, 작품의 분명한 이름, 주소 등이 기록되어져야 한다.

9. JURY

1) ARCASIA작품심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RCASIA 작품 창설기구의 ARCASIA회장, 영연방에서 특별히 초청되는 비건축사 한분, ARCASIA 지역에서 오신 우수한 건축사 한분, 비ARCASIA 지역에서 오신 건축사 한분으로 구성된다.

작품심사위원회의 정족수는 6인이 넘지 않아야 하고, ARCASIA회장은 투표권이 주어지며, 심사위원은 4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일 ARCASIA회장이 유고시 작품 시상위원회 회장이 참석하면 된다.

2) ARCASIA 지역

ARCASIA 지역 시상에 대한 시상위원의 규정으로 3지역으로 나눈다.

- Zone A :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 Zone B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일랜드
- Zone C : 차이나, 홍콩, 대한민국, 필리핀

다른나라 즉 지역지정에 표시되지 않은 나라는 ARCASIA에서 선출된 적당한 지역에 배치될 수 있으며, 일본, UMA, AAM 등은 ARCASIA 회원국가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배치가 결정되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ARCASIA상 심사위원 최종결정
ARCASIA시상 심의위원에서 취해진 모든 결정사항은 최종 시상대상에 오르게 된다.

10. 제출작품의 최종심사

ARCASIA회원국의 협회 회장으로부터 도착한 모든 제출작품은 반드시 각국협회에게 회신된다. Form A문서가 각국의 선정된 회원작품이 회신된다. 이 회신문서는 최종 심사위원들에게도 전달된다. ARCASIA 시상 사무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제출문서를 검토한다. 1차 서류를 제공받은 심사위원회의를 작품도착후 개최한다. 필요한 추가 보완자료를 최종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가 ARCASIA 심사위원회에 도착하면 최종심사 위원회의가 개최되며, 여기서 최종작품을 심사해서 선정하게 된다.

11. 결언 및 제1회 아카시아 건축상 수상 작품현황

ARCASIA 작품 수상작 최종 결정에 위의 모든 규정사항, 공식 문서 등에 의하지 않은 제출작품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최종시상 작품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작품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질문은 ARCASIA 작품 심사위원회

Architect Syed Zoigham S. Jaffery, AIAP
C/O Habitat PAKISTAN
P.O. Box 12713
Block 6 Pechs
Karachi 75400 PAKISTAN
Tel 92-21-493-1770
으로 연락 할 수 있다.

1992년 ARCASIA 작품상의 중간 보고서, ARCASIA 시상 심사위원회에 60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최종 심사위원회는 제5차 아시아 건축사대회가 개최되기 전날 1992. 10. 첫주에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개최되었다. 최종 심의위원회는 ARCASIA회장 Mr. Bilgrami, ARCASIA 작품상 창설자 건축사 Mr. Zaigham Jaffery, 영연방 위원회의 탈월한 비 건축전문가 Mr. Ardeshi Cowasjee, ARCASIA 회장이 소속되지 않은 지역의 ARCASIA 회원국가의 건축사에서 Zone B의 인도네시아 Adhi Moersid, Zone C의 대한민국 김우성씨가 참가하였다. 세계적으로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는 호주의 Mr. Philip Cox는 ARCASIA 지역이외 국가 대표로 참석하였는데 이 심사위원회의는 파키스탄의 Karachi에 있는 Pearl 국제호텔에서 개최하였다. (1992. 8. 16~1992. 8. 17)

Category 4는 제출된 57개 작품중에서 11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이 작품 모두는 규정에 합당하게 모든 제출문서를 ARCASIA 시상위원회 사무처로 보내졌다.

3개의 작품이 회원국가 협회를 거치지 않고 도착되었는데 이 작품들은 최종 심의에서 규정 위반으로 탈락되었다. 최종심 의위원회는 제5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개최전까지 이 11개 작품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보내줄것 ARCASIA 규정에 기록된대로 각국협회에 보내와서 우리나라 오운동회장이 3개 작품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송부하였다.

제1회 아카시아 건축상 수상현황

1992년 아카시아 건축상 심사위원회에 60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최종 심사위원회는 제5차 아시아 건축사대회가 개최되기 전날 1992년 10월 첫 주에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개최되었다. 최종 심의위원회에는 아카시아 회장 Mr. Bilgrami, 아카시아 건축상 창설자 건축가 Mr. Zaigham Jaffery, 영연방 위원회의 비건축전문가인 Mr. Ardeshi Cowasjee, 아카시아 회장이 소속되지 않은 지역의 아카시아 회원국가의 건축가 중에서 zone B의 인도네시아 Adhi Moersid, zone C의 대한민국 김우성씨가 참가하였다.

호주의 Mr. Philip. Cox Rk씨가 아카시아 지역의 국가 대표로 참석하였는데 이 심사위원회의는 파키스탄의 Karachi에 있는 Pearl 국제호텔에서 개최하였다. (1992. 8. 15~1992. 8. 27)

1992년 아카시아 건축상 금메달의 작품은 파키스탄 라호르에 세워진 Al-Hamra 예술센터가 차지했다.

제5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개최되었던 라호르에 세워진 이 건물은 ACA-5의 토론회의 장소이기도 했던 곳이며, 건축사 Nayyar Ali Data씨가 설계한 라호르 시민 모두가 자랑하는 예술센터이다.

참여작품은 11개 작품이었으며 이들에 걸친 심사 결과 수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Category A에서는 「정원이 있는 주택」 중국 북경 Liang Young Wu씨 작품, Category B에서는 「알리함과 예술센터」 파키스탄 Mr. Nayyar Ali Data씨 작품이 금상, Category C에서는 「Kanagawa Science Park」일본 Tskekuni Ikeda 작품, Category D에서는 방글라데시 Shahalam Zahiruddin의 「Ahsan Mansil Dhaka」가 금상으로 선정되어 1992년 아카시아 건축상의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류춘수씨의 삼하리 주택과 김석철씨의 예술의 전당이 각각 A·B분야의 최종 심사단계까지 올랐으나 아깝게 입상에 머물렀다.